

## 토론문

대전대학교 허재영

1.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 반대진영에서 참여를 거절한 사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조사는 사업의 사후조사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립적 입장의 전문가만으로는 사업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들어 2012년 10월 금강의 백제보 부근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의 경우, 환경부에서는 4만여마리가 폐사했다는 것만을 확인하고, 폐사의 원인은 불명하다고만 발표하였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한 바로는 폐사규모가 30여만 마리이고, 폐사원인도 준설로 인하여 폐사된 물고기의 주서식처인 여울이 사라지고, 흐름의 정체에 따라 산소의 공급이 급감하고, 유기물의 하상퇴적으로 인하여 용존산소의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객관적인 조사자료와 탐문조사 등에 의해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의식 즉, 비판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백제보 물고기 집단폐사의 경우와 유사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이 폭넓게 지지를 받으려면 획기적인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조사기간도 충분히 길게 잡아야 한다. 수질이나 생태계의 경우 단기간의 조사결과만으로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분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그 외에, 조사항목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정당성은 고용효과, 지역경제기여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이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도 필요하다.

4.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현재 드러난 문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 1) 4대강사업의 문제는 조급한 일정에서 비롯됐다.
  - 2) 보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홍수조절이 가능한지, 보가 완전히 저류된 상태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홍수가 중상류에서 하류로 빠르게 도달하면서 최하류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발생했을 경우 사업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였다.
  - 3) 지류와 상류에서의 유사유입과 직강화와 저수로 건설로 인한 하도의 퇴적과 세굴에 대한 예측이 충분하지 않았다. 소위 역행침식(두부침식)의 문제도 어느 정도 예측되었었다.
  - 4) 지하수위의 변동에 따른 하천주변 제내지의 농경지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있었다.
  - 5) 보로 인한 유속저하로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 보 상류에서의 조류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금강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결과를 제시하였다. 백제보의 물고기 집단폐사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6) 특히 보의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폐해가 큰 구조물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도 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보의 존치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무엇보다 전문가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던지, 정부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제외하더라도, 동의하면서도 방관한 전문가들이 많다. 전문가들이 소신있게 처신하지 않으면 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수자원관리는 유역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먼저 각 광역단체에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지역계획을 유역별로 또는 국가전체단위 통합 조정하여 국가수자원종합계획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20140509)